

기리카네(截金)

기리카네는 아주 얇은 금박이나 은박 등을 잘라낸 것을 나무 등으로 만든 바탕에 붙여 섬세하고 정밀한 문양을 그리는 장식기법으로, 1981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기리카네는 아스카 시대(552~645)에 아시아 대륙에서 전해졌으며, 전통적으로 불상의 장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도 시대(1603~1867)에 들어서면서 작업 공정이 빠르고 바르기 쉬운 금니(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에 있는 2개의 사찰에서는 기리카네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종교와 무관한 미술품에 응용하는 공예가들이 등장하면서 기리카네는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금박은 숨만 닿아도 찢어질 정도로 섬세하기 때문에 여러 겹을 겹쳐 보강합니다. 여러 장을 겹친 금박을 서로 밀착되도록 충분히 달궜진 재 위에 놓습니다. 금박을 다룰 때는 대나무 가위나 대나무 칼을 사용합니다. 대나무는 금박에 달라붙지 않으며, 금박을 손상시킬 수 있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자른 금박을 조심스럽게 작품 표면에 붙여 문양이나 조각을 장식합니다.

이시카와현 출신의 니시데 다이조(1913~1995)는 기리카네 기술을 높이 평가받아 198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